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미은



지난 1일 광주시립교향악단 크리스티안 루트비히 취임연주회에 다녀왔다. 이날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한 여성 관객의 모습이었다.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이 연주될 때 옆자리에 앉은 그녀가 악장마다 박수를 치는 바람에 계속 신경이 쓰였다. 척 봐도 클래식 연주회를 관람한 적이 없는 사람 같았다.

연주가 끝난 후 그녀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주변에 기립하는 관객이 거의 없었음에도 홀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적어도 기자 주변에서는 가장 열성적인 관객이었다.

'초보 클래식 팬'을 모으는 힘

이날 연주회 때는 악장 사이에 박수를 치는 사람이 유난히 많았다. 예전 공연에서 모든 학생들은 사실상 고등부 수업을 주말반으로 돌려세웠다. 그나마 밤 열두 시까지라는 두 시간 동안의 여유시간마저 없어지면서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은 주말 수업 이외에는 선택의 기회의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 하지만, 주중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되는 사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일반 사립학원보다 통제가 없는 아파트 공부방, 과외 교습소, 혹은 아파트 전단지나 소개를 통해 개인과외를 한다.

그러다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오늘, 클래식을 잘 모르지만 클래식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새로운 관객들이 많이 유입됐구나' 하는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안도감도 들었다. 광주시향이 다시 '그들만의 시장'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잘하면 지난 2년간의 '클래식 열풍'을 계속 이어

광주 문화계도 '스타가 필요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초보 클래식 팬들을 공연장으로 불러모은 '함'의 8할은 커리어 좋고 외모도 현철한 신임 지휘자였다. 그는 관객들 사이에서 이미 스타였다. 중앙 문화계를 움직이는 건 '과외 스타'다. 광주 문화계에도 스타가 필요하다. 특히 관객층이 두텁지 못한 클래식, 연극, 무용 등 기초 예술분야는 더욱 그렇다. 물론 스타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문화계라면 사상누각(砂上樓閣)이기 쉽다. 하지만 스타라는 존재가 관객들이 생소한 문화 장르와 친숙해 질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정서

적으로 친숙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스타 발굴은 필요한 대목이다.

신비주의를 컨셉으로 하지 않을 바에야 스타가 되려면 우선 노출이 잦아야한다. 그런 점에서 민간 단체들보다 풍성한 예산으로 1년에 수십차례 공연을 진행하는 시립예술단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광주문화회관이나 시립예술단체의 스타 만들기에는 거의 없었던. 올해 문화회관이 광주시향 악장과 함께 하는 클래식 프로그램을 기획했지만 그 가 경이필하모니로 옮겨가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5월께 선발된 신임 악장이나 다른

단원들이 꼭 이어갔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립무용단도 주역 발레리나를 스타로 키우는 데 적극 나서야한다. 최근 김연아의 '지젤', 영화 '블랙스완' 등의 영향으로 발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터라 분위기도 좋다. 소년소녀합창단은 'Wish to fly' 등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스타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민간예술단체에서는 남자 춤꾼 이강원 과 최인경이 눈에 띈다. 김미선의 춤도 한번 보면 잊기 힘들다. 또 이이남·손봉채·강운희 등 지역 문화계 40대 중진 작가들

이 결성한 미술 그룹 '운동'의 행보나 샌드 애니메이션 '장르' 장르에 도전중인 화가 주홍씨의 작품도 인상적이다.

'팬심' '빠심' 충만 팬클럽 회원

작가중에선 세계문학상 수상작 '내 심장을 쫓아'의 정유정이 돋보인다. 그녀를 '아마존 여전사'에 비유한 소설가 박범신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소소한 일상과 내면 세계를 주로 다루는 여성작가들과 달리 그녀의 작품은 스케일이 크다.

특히 최근작 '7년간의 밤'은 소설 읽는 재미를 만끽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장담컨대, 524페이지에 달하는 소설이지만 한번 집어들면 결코 놓을 수 없다. 마지막 결말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수는 있어도 강한 흡인력과 이야기의 힘은 대단하다.

문화예술과 친해지기 위해 올리는 지역 예술인들과 단체의 '팬심' '빠심' 충만한 열혈팬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그 첫발은 공연장과 전시장에 가보는 거다.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연극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루비비히와 광주시향의 베토벤의 '운명', 시립무용단의 발레 '살비아', 예술의 거리에서 열리는 전시회, 이 봄, 문화차림표는 푸짐하다.

어떤 걸 선택할 지는 당신의 취향에 달려 있다.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기고

송경중



지난달 10일 민선 5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가 열렸다.

지역민의 최대관심은 광주공항의 국내선과 군용비행장의 이전 문제였다. 회의의 결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14년까지 현재 상태로 공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송정리 일원 595만㎡, 약 183만평의 부지에 조성됐다. 47년이 지난 지금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공항은 광주의 중심부가 되었고, 이로 인한 소음 피해는 심각하다. 그래서 소음피해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을

팔 이전을 합의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무안 공항의 경우, 광주 공항과 달리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군 공항이 이전되더라도 광주에 비해서 소음피해가 거의 없다. 군 공항이 무안으로 오면 광주 공항의 국내선도 무안공항으로 들어오게 된다. 광주공항은 군 공항에 세들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무안 공항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국토 서남권의 명실상부한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광주공항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2014년에 KTX가 개통

군 공항 이전, 대승적 결단 필요

공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 결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일 기존의 입장을 바꿔, "광주와 전남이 군 공항 이전에 합의하면,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정 권한을 사·도로 넘긴 것이다.

그러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항이전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된다. 그런데 흑시나 했던 이번 회의에서마저 군 공항 문제는 꺼내지도 않고, '국내선 이전 문제만 KTX가 개통되는 2014년 이후에 논의한다'는 엉거주춤한 합의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광주·전남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 공항 이전은 지금 합의한다고 해도, 이전완료까지는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3년 후부터 군 공항도 아닌 광주공항 국내선이 이전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 얼마나 더 걸리게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도 공항 인근 30만 주민은 소음에 계속 시달려야 하고, 수천억원이 투자된 무안공항은 지금처럼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답은 간명하다. 지금이라도 사·도가 일

되면, 1시간 13분 만에 광주와 서울이 연결된다.

공항의 기능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군 공항 소음문제도 무안공항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광주도 국내선과 군 공항을 일괄해서 무안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고, 영산강과 황룡강, KTX송정역이 만나는 183만평의 공항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광주는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영산강 시대와 KTX 시대 성공적인 준비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10일의 사·도간 공항문제 합의는 당연히 가야할 길을 목전에 두고, 3년을 기다렸다가 가지는 것이다. 아무런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보화시대의 3년은 산업화시대의 30년이고, 농경시대의 300년과 맞먹는다고 한다. 오늘날 시간은 가고 있고, 인근 주민은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안공항은 한숨 쉬고 있다. 사·도의 대승적인 결단과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간절히 희망한다.

<광주시의원>



김래원



안타깝고 서글픈 이야기지만 광주의 현실적인 사교육비는 날로 치솟고 있다. 사설학원의 밤 열시 규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학생들은 사실상 고등부 수업을 주말반으로 돌려세웠다. 그나마 밤 열두 시까지라는 두 시간 동안의 여유시간마저 없어지면서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은 주말 수업 이외에는 선택의 기회의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 하지만, 주중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되는 사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일반 사립학원보다 통제가 없는 아파트 공부방, 과외 교습소, 혹은 아파트 전단지나 소개를 통해 개인과외를 한다.

몇백만원을 훌쩍 쟁기는 과외를 배우고 원장 눈치보며 많은 학생을 죽도록 가르치며 힘들게 일해야 하는 학원에서 근무하고 싶은 강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학원들이 운집해 있는 봉선동이나 장동에 가보면 이제 저렴하고 고정된 수강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중대규모 학원들은 아예 없다. 대다수의 학원이 원장이나 강사들 간담으로 내걸고 개인상담을 통해 일도당도않은 수강료를 요구하고, 모두가 수업시간이 아닌 그분지도 명목으로 수강료를 멋대로 부르고 있다. 교육청인 가도 내지 않은 채 강의실 한 칸을 빌려서 보따리 장사하는 불법 강사, 과외교습

지금 광주는 과외 교습자 무법천지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학원이 아닌 이런 소규모 과외교습소, 공부방 형식의 사교육들이 요구하는 수강료를 알고 계시는지. 중학생은 일주일에 두 번 수업하고 최소 20만원, 고등학생은 최소 25만원, 30만원부터 '시작'이다. 집으로 오는 개인과외를 학원강사 출신이거나 교대나 사대, 의대 휴학 및 재학생에게 받게 되면 고등학생 기준 40, 50만원 선이다.

교육청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학원들 대다수가 과당당 15만원 이내 수강료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업시간 대비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이제 통제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학원보다 이런 소규모 공부방이나 과외를 선호하는 추세다.

이로인해 광주의 중고등학생 대상 대규모 학원들은 대부분 문을 닫거나 경영난 때문에 학원을 축소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학생 서너 명만 과외수업하면

자들이 돈 많이 벌고 판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광주 사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신고하면 나가서 단속하겠다는 참으로 성실한 답변을 들으며 이미 말기암 환자의 혈관에 퍼진 암덩어리처럼 모조리 번져버린 이런 업체나 과외교습자들을 일일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교육감을 비롯하여 각 교육청장이 강력 한 의지를 갖고 현실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광주의 사교육시장은 이제 빈의 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적정선의 수강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원들은 사라지고, 과외교습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런 세상이 되어도 교육관청이나 교육감님은 조사되지 않는 과외 관련 사교육비 규모 학원들은 대부분 문을 닫거나 경영난 때문에 학원을 축소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학생 서너 명만 과외수업하면

<문화평론가>

광주일보에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입원 보험금 요구 행태 사라져야

우리나라 국민성 중 최고로 나쁜 버릇을 꼽자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무작정 입원부터 하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교통공단에서 나온 통계를 보자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율은 73.1%로 일본의 9.9%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높다.

이들은 입원을 하더라도 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 치료를 받지않고 외부에서 다른 일들을 하며 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입원치료비는 물론, 휴업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이 1인 평균 17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교통사고만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일단 드러눕는 현실. 그리고 일부 병원은 모르는 척, 못 이기는 척 입원을 시켜 이익을 챙기는 또 다른 병폐.

우리가 과연 진정한 선진국 대열로 들어설 수 있는 국민성을 지녔는지 자문자답해볼 일이다. ▲김삼욱·목포시 대방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돈 없어 병원 못 가는 환자 전담이 최고라니

전남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낙후되고 가난한 전남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

보건복지부 등이 공개한 '2010년 지역건강 통계 한눈에 보기'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11.0~20.0%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년간 병·의원(치과 포함)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사정상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역별로 10명 중 1~2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미치료율은 27.7~45.7%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고 45.7%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남이다. 더욱이 40%를 넘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결국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전남인 것이다.

이는 노령인구가 많은 것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을 보면 19~29세 연령대는 18.4%에 불과한 반면 60~69세는 67.3%, 70세 이상은 무려 74.1%에 이른다. 또한 전남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18.3%로 전국 으뜸이다. 노령화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전남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는 16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하다. 그만큼 전남이 타지역에 비해 급속하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역건강 통계는 낙후-인구 감소-고령화-생산성 저하-삶의 질 악화의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는 전남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인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어떻게 복지·선진국가 운운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전 국민이 고투 잘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잇따른 시교육청 '비리' 해도 너무한다

광주시교육청이 각종 비리로 크게 혼들리고 있다. 정수기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교육청 간부가 자살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전 교육장 등 5명이 공사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뇌우의환(內憂外患)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미 업체 관계자로부터 전 교육장과 교장 등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데다 이들 5명 외에도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에도 가자재 납품비리로 인해 학교장 등 19명이 사법 처리되면서 모 중학교 행정실장이 자살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교육청 간부가 입건되는 등 적지 않은 충격파를 몰고 왔다.

교육계의 잇따른 비리는 마치 '비리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아 말문이 막힌다. 자고 나면 터지는 교육계의 비리에 학부모나 시민들로서는 참담할 따름이다.

교육정책의 청렴성을 강조해온 장휘국 교육감에게도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일선 학교의 비리는 무엇보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이라는 데 심각성이 크다. 교육계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겠는가. 그럼에도 교육청이 한 일이라고는 '공년벌' 외에 아무 것도 없다. 청렴과 재발방지를 그렇게 떠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게 이들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이제 교육계의 비리는 어떤 식이든 확실치 뿌리 뽑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불신을 놓고 교단 안장마저 뒤흔드는 일에 적당만큼 손을 수 없다. 시교육청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전향적인 개혁기구부터 설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경찰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리되,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안정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수사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세계 미술시장에서 가장 위상이 많은 작품 가운데 하나가 폴 고갱이 1885년 그린 '꽃병(백합)'이다. 이 작품은 고갱의 그림 가운데 중간 정도의 수준에 속하는 작품으로, 많은 위상이 팔려 나갔지만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5월, 이 그림이 유명 경매회사인 소더비와 크리스티에 동시 위탁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고갱 전문가의 감정 결과 크리스티가 위탁받은 그림이 '옳지 않은(위작)' 작품으로 판정이 났고, 크리스티는 이 작품을 경매용 도록(圖錄)에서 뺐다. 진품은 소더비 경매에서 31만 달러에 판매됐다.

위작과 진품이 동시에 서로 다른 경매회사에 위탁된 것은, 꽃병 진품을 보유한 미술품 딜러 엘리 사카이에게 속아 꽃병 복제품을 사들인 일본인 컬렉터가 광고로써도 사카이에 진품을 소더비에 위탁한 바로 그 시기에 자신의 복제품을 크리스티에 위탁한 때문이다.

결국, 사카이는 죄를 인정하고 사갈,

과울 클레, 구스타브 모로, 르누아르 등의 작품 위작을 자신에게서 구입한 사람들에 총 1250만 달러를 환불해 주기로 합의하고 감옥행을 면한다.

위작은 미술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돈벌이 대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계 고가 미술작품의 40%가 위작이라고 보고 있다. 화가 렘브란트의 경우 전세계 미술관에 걸려

는 작품이 600점에 이르러, 개인 컬렉터가 보유한 그림도 350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그린 작품은 많아야 320여 점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당수가 위작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진군이 10억 원에 사들인 청자가 실제로는 1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정가가 부풀려졌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지만, 수백 년을 견뎌온 예술작품이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아 서글프다.

/홍행기 정경부처장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光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